

Session 08 음행의 영을 극복하기 (마 5:27-30)

(Overcoming the Spirit of Immorality)

I. 음행의 영

- A.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음행의 영을 대적할 것을 말씀하셨다(마 5:27-30). 예수님께서서는 구약의 율법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 아닌, 구약의 본래의 의도를 설명하셨다. 십계명의 일곱 번째에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육체적인 간음 이상의 것, 즉 영적인 음행을 더불어 말씀하고 계신다. 바리새인들은 간음은 육체적인 것만 피하면 된다고 가르쳤다.

27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9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 5:27-30)

- B. 여기서 예수님께서서는 성적인 중독으로부터의 자유를 가르치고 계신 것은 아니다. 그분은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많이 간과되는** 두 가지 원리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 첫째, 간음은 행동에서 출발하지 않으며, 눈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옮겨간다(마 5:28). 둘째, 우리는 음욕을 자극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과격하고, 때로는 값 비싸고 고통스런 결정을 해야 한다(마 5:29).
- C. 예수님께서서는 음행의 영이 어떻게 작용하며 자라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르치셨다. 우리는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데, 이는 영적인 암과 같아서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라나기 때문이다.
- D. 음행은 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혼 언약을 벗어나는 모든 성적인 활동을 말한다(육체적, 언어적, 기술적). 예수님께서서는 음행이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주는 일이며,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망가뜨리며,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가족과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림을 알고 계셨다.
- E.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이 가르침을 통해 은혜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돕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에 대해 지적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행을 발견해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혜를 전해주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음행의 영의 속이며 파괴하는 특성을 이해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이 통찰력을 얻음으로 유익을 얻기를 원하신다,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마 5:29, 30). 예수님께서서는 정결함으로 사는 이가 하나님을 보며, 더 깊이 경험하게 됨을 아셨다(마 5:8).
- F.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축복은 그분의 모든 행하심과 계명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우리가 예수님과 맺고 있는 모든 관계로 인해, 우리의 삶은 그분의 축복으로 인해 더욱 부요해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그분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하며,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한다.
- G. 주께서는 모든 성적인 표현을 결혼 언약의 범위 안에 두도록 하셨다. 성적인 활동이 한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유일한 곳은, 자신의 배우자의 삶, 고통, 연약함, 기쁨, 목적들, 가족, 부모, 자녀, 꿈, 질병, 번영과 가난

등에 함께 하기로 헌신한 언약 안에서이다. 이러한 일생 동안의 언약 없이 성적인 것으로 관계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영을 더럽히며, 마음이 흐려지며 상처를 입게 하고, 정욕이 늘어나게 만들며, 자신의 삶을 비관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만든다(삼하 12:10).

II.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2 가지 원리 (마 5:28-30)

- A. **원리 #1:**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음행의 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셨다. 음행의 영은 어떤 사람을 직접 바라보거나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 포르노)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에 뿌리를 둔다. 그리고 보는 것은 마음이 성적인 환상을 가지도록 만든다. 간음은 눈으로 하는 간음에서 마음으로 하는 간음으로, 그리고 육체적인 간음으로 커져간다.

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 5:28)

- B. 예수님께서서는 음행의 영에 있어서 눈이 가지는 역할을 강조하셨다. 부도덕한 열정의 타는 불을 끄려고 노력하기보다, “눈의 문(eye gate)”을 닫는 것이 훨씬 쉽다. 옴은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는 것의 능력을 이해하고 있었다.

1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9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욘 31:1, 9)

- C. 다윗은 완전해지며(perfect),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기 위한 싸움에서 눈의 문이 싸움의 최전방임을 단언했다.

2 ...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3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시 101:2-3)

- D. **원리 #2:** 예수님께서서는 음행을 과격하게 다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셨다. 음욕에 대해 형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 안에 음욕을 일으키는 것은 어떤 것이던 제거해버리기 위해, 우리는 때로 과격하며, 희생이 따르며, 고통스런 결정들을 해나가야 한다(마 5:29-30). 이는 우리가 소중해 여기는 것들(사람들, 장소 혹은 소유물)이 우리 삶 안에서 제거되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29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 5:29-30)

- E. 음욕을 다루는데 있어서 과격한 본보기 중의 하나는, 바울이 남자들에게 권고했던 “악의가 없는 접촉” 또한 피하라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다. 남성들은 이것이 그들 안에 음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1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한글 KJV: 접촉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나) (고전 7:1)

- F. 교회 안의 많은 성도들은 지옥을 쉽게 생각한다. 지옥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음란한 이를 지옥으로 보내실 것을 알고 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에 대해 담대하게 외쳐야만 할 긴급함을 불러일으킨다.

9 ...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 도적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전 6:9-10)

5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6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엡 5:5-6)

8 ...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 21:8)

14 ... 문들을 통하여 성(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15 ... 음행하는 자들과 ...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 22:14-15)

III. 음욕의 위험성 #1: 음욕은 자라난다

A. 음행의 영은 한 사람이 이에 대해 문을 여는 만큼 정확하게 작용한다. 우리 모두는 죄로 물든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났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weakness)이 악함(wickedness)으로 발전되기를 원하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협조가 필요하다. 사단은 우리의 영을 오염시키며, 가두어버리기를 원한다.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정욕(음욕)이 습관이 되었고, 방치된 습관은 꼭 필연(중독)이 되어버렸다.”

B. **전제:** 음행이 위험한 것은, 이것이 점점 자라나고, 더더욱 제어할 수 없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작은 음행을 가지고 장난치며,” 후에 이것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악한 활동들로 인해 식어버린 마음과, 어두운 마음, 그리고 더럽혀진 양심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타락과 부패는 계속 증가하게 된다(오늘의 수치심, 놀림, 타락은 후에 심판으로까지 이끈다).

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한글 KJV: 속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 (갈 6:7-8)

C. 음행은 몸에 죄를 지어 성적인 중독이 형성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 음행은 몸을 더럽히며 영을 둔하게 만들며, 이 악마적인 열린 창을 통해 사단이 합법적으로 인간 안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18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고전 6:18)

D. 바울은 로마서 1 장에서 사람들이 음행에 관계됨으로 어떻게 자신들의 몸을 향해 죄를 짓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음행을 제거하라는 성령님의 경고를 계속 거절하는 이들에게 “보응”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설명한다. 이 보응은 하나님께서 점점 그들을 포기하심으로, 더 큰 어둠, 즉 그들이 더러움에 내어버림을 당함으로 시작되며(24 절), 부끄러운 욕심으로 내버려 둬를 당하고(26 절), 결국은 상실한 마음(한글 KJV: 버림받은 마음)에 내어버림을 당하는 것이다(28 절). 어떤 사람이 어두운 정욕에 “내어버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친절하게 사람 안에 두신 보호하심(restraint)을 제거하시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들은 더 큰 음욕으로 밀려가게 된다.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욱되게 하셨으니 ...
 26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27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8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할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롬 1:24-28)*

1. 첫째, 그들은 더러움(uncleanness)에 “내버려둠”으로, 음욕에 이끌림을 받아 더욱 심한 부도덕한 일로 인해 그들의 몸을 욱되게 한다(24 절).
2. 다음으로, 그들은 부끄러운 욕심(vile passions)에 “내버려둠”으로, 그들이 이전에 익숙하던 것을 훨씬 넘어 더 강한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26 절). 새로운 종류의 성적인 경험에 대한 타오르는 정욕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에 허락하시는 심판 혹은 “형벌”의 표현이다 (27 절).
3. 마지막으로, 그들은 상실한 마음(버림받은, debased mind)에 “내버려둠”을 당함으로, 그들의 생각 안에서 모든 제한이 사라짐으로, 그들은 악마적인 힘에 이끌려 매우 수치스런 일들을 하게 된다(28 절).

IV. 음욕의 위험성 #2: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신다

- A. 예수님께서서는 회개 없이 계속해서 음행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신다. 그분은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에게 음행을 용납하지 말 것을 경고하셨다.

12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 14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 16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 2:12-16)

18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 20 ...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 22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sickbed, 병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23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 (계 2:18-23)

- B. 성도들은 때로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병에 걸리거나 때 이른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치 않는 자들을 징계하시되, 사단이 그들에게 질병을 주도록 허락하시기도 한다 (고전 5:1-5; 11:30-32).

1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 4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 5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멀하고(질병)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전 5:1-5)

- C.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 우리는 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지속적인 타협의 부분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돌이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치 않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음행에 대해 보복하신다(살전 4:4-8).

30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31 우리가 우리를 살렸으면 (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2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1:30-32)

V. 우리는 부단히 음행의 영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A.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님과 그의 관계가 자라나기를 구하며, 그분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서 우리 마음을 고치시도록 함으로 우리는 음행의 영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잠언 5-7 장을 지속적으로 읽음으로 음행의 끔찍한 대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

21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치유)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약 1:21)

- B. 다음의 많은 부분들은 음행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도록 돕는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내면을 바라보기(looking inward); 하늘과 그의 상급을 보는, 위의 것을 바라보기(looking upward, 골 3:1-4; 23-24); 쓴 마음과 수치심과, 왜곡된 마음을 다룸으로 뒤를 돌아보기(looking backward);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목적들과 그분의 마지막 때 계획에 대해 앞날을 기대함으로(looking forward), 다가올 영광과 재난에 대해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한다(벧후 3:14); 우리의 음행이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기(looking around); 책임감을 가지고 관계 가운데 다른 이들을 고려함(looking to others,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함); 우리가 보는 것과, 가는 장소와 하는 일 가운데 음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환경들을 피하기 위해 경계를 세움으로 밖을 둘러보기(looking outward).